

제주사회복지신문

>2016년 3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01호

2016년 달라지는 사회복지시책

기초연금 수급대상 확대된다

올해부터 바뀌는 사회복지 시책을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보육, 보건·위생 등의 분야로 나누어 정리했다. <편집자 주>



<생활보장 분야> 생계급여 선정 기준 확대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된다. 4인기준 소득인정액 127만원 이하인 가구부터 생계급여

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27만원으로 인상돼 2015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9만원 가량 인상된다. 지금까지 시군구에서만 실시하던 통합사례관리를 '16

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위기가구에 대해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한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 의욕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마련된 내일키움통장에 본인 적립금에 매칭한 정부 지원이 추가된다.



<노인 분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기초연금의 2016년 지급 대상자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160만원으로 상향(전년 대비 7.5%) 조정된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후 탈

락 시에도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통해 기초연금이 필요한 경우 누락되지 않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올해부터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바뀌며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대상자

를 5586명으로 확대하며, 재능나눔, 자원봉사, 민간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공익 활동 참여대상을 기초연금수급자로 일원화하고 취업 및 창업활동도 늘려, 민간형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추구할 예정이다.



<장애인 분야>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상향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전년대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 8000원)에 비해 7.5% 상향된 금액이다. 이를 통해 중증 장애인 인구의 70% 수준이 장애인 연

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오는 4월부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월 최대 28만 5230원(잠정)선의 장애인 연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 3면에서 계속

몽생이기자단 활동을 마치며



▲ 왼쪽부터 고재웅·박주석·양재훈 학생, 양선영 선생님, 장영만·이호석·박세익 학생, 강창환 선생님(그외 김효일·김현석 학생 활동 참여)

“다양한 경험 바탕으로 꿈 이뤄갈 것”

제주방언으로 조랑말이지만, 꿈을 낳는 마을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는 ‘몽생이(夢生里)’ 기자단의 활동이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몽생이 기자단 3기는 지난달 16일 제주영상미디어센터에서 그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몽생기자단은 삼성꿈장학재단의 후원으로 제주중, 제주영상위원회, 제주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운영한 청소년영상제작 동아리 미소지음 내 기자단이다. 기자단은 지난해

동안 랭귀지프렌드, 금강수산유통 등의 봉사단체 및 나눔업체와 제주중 내에서 진행한 영상교류캠프, 아침밥&나눔데이 캠페인, 다우렁 봉사단 등의 나눔소식 등을 색다른 시각으로 다뤘다.

몽생이 기자단 활동에 꾸준히 참여한 제주중학교 장영만 학생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랭귀지 프렌드 봉사단 취재였다”며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우리의 꿈을 이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제주사회복지신문을 방문하시면, 기사의 따른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논란
- 기획 7면
제주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
- 사회복지소식 4-5면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 특집 8면
시설탐방(75) - 제주대학교를 찾다

인권취약계층을 만나는 최일선인 사회복지인들의 복지서비스 권리 관점 확립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감수성향상과정」 교육참가자 모집

일 정 1차: 2016. 3. 28(월) ~ 3. 29(화)
2차: 2016. 4. 28(목) ~ 4. 29(금)

장 소 우리 협의회 2층 삼다수 홀

신청방법 협의회 홈페이지 교육신청 메뉴를 통해 인터넷 접수(※회차당 30명)

신청기간 1차: 2016. 3. 2(수) ~ 3. 18(금)까지
2차: 2016. 4. 1(금) ~ 4. 20(수)까지

강 사 고애순, 노정환(국가인권위원회)
최 훈(강원대학교)
최완욱(광주인권운동센터)
신강협(제주평화인권센터)
장소영(교육협동조합 사무)

교육비 20,000원
(회원시설 종사자 10,000원)

주 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SSN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인권 사랑방



문의) 사회복지 인권 사랑방 064)702-3783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논란'

지난달 19일 정책토론회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 의원)와 제주복지공동체포럼(대표 강익자 의원)의 공동주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업협회(회장 임태봉)의 주관으로 지난달 19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 강익자 대표가 좌장으로 나선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찬섭(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장재구 서울시사회복지사업협회장, 강경식 제주도의원, 나용해 제주도 복지청소년과장, 고현수 제주장애인포럼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남찬섭 교수는 “정비방안은 복지축소를 지향하



는 큰 틀 내에 있는 것이며, 지역복지 역제기능의 제도화를 추구한 것”이라며 “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 원칙과 수요자중심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재정효율화를 앞세워 지방복지를 억압하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고현수 대표는 “협회의 무화로 인해 자치단체는 스스로 복지사업에 대해 자기검열을 하며 지역의 복지욕구와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창의적인 계획과 투자의지를 상실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경식 의원은 “지방자

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과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방안을 폐지하기 위해 제주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용해 과장은 “지난해 8월에도 제주도는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업은 폐지 권고에도 계속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었다”며 “지난해 12월 자체정비계획 결과, 현재 9개의 사업만을 정비 중이며, 통합·폐지되는 6개 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교통약자 이동편의·다문화가족 지원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월 입법예고 했다.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시책 소외 현상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 지역 거주 다문화 가족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시책 마련 △이혼 등 위기상황에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등의 위기개입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활동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과 단체

에 대한 포상 등이 포함됐다. 유진의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 확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와 사회참여 보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또는 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까지 이용자 확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 운영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등이다.

‘사회복지인권사랑방’은 이번호부터 ‘사회복지와 인권’을 주제로 다루는 ‘인권 토포’를 시작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인권 토포

“인권은 자격을 묻지 않는다.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서 인권은 보편성을 가진다. 인간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인권이다”
사회복지인권사랑방 064)702-3783

2월 기탁 현황

- ▲고한철=감귤 100kg ▲금강수산유통=냉동해물 32kg ▲금강축산유통=돈육등 310kg ▲김치원=김치 40kg ▲꽃비나리는뜨락=떡 181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 1167개 ▲서문식품=두부 386개 ▲신화유통=고추장등 387개 ▲얌얌농조합법인=빵 56개 ▲유진상사=오뚜기식품 984개 ▲이든이네=건멸치 7.5kg ▲자연드림 이도점=빵 154봉 ▲제주보리촌=보리빵 840개 ▲파리바게트 동광초점=빵 126봉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노형점=세탁세제 55개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오라점=빵 46봉

3월 사회복지시설 · 단체 행사

사전에 알리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보도자료 접수' 게시판에 게재 바랍니다. 문의=702-3784(제주사회복지협의회)

시설·단체명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문의
서귀포시장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장애·비장애 청소년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변화 나눔 활동을 통한 장애인개선 프로그램	•장애청소년 5명, 비장애청소년 5명 •타일벽화 이론 및 실기 교육 •타일벽화활동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및 사회공헌활동 등	3월-12월 센터 (프로그램실)	733-6611
장애인 여행문화연구소, (주)두리함께, 소셜씨어터	장애인 여행 토크콘서트 세상속으로 동근여행	• '인한복' 김숙현 대표 강의 및 패션쇼 • 유종욱 작가의 나만의 컵만들기 이벤트	8일(화) 18시 라마다호텔 탐라홀	742-0078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성인지정책 컨설턴트 모집	•정책수립·시행시 성차별적 요인 분석 역할 •지원자격: △여성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전공 석사 소지자 △성인지정책 관련 연구·교육 경력자 △업무 수행 경험자 등	9일(수)까지 이메일 접수 (jewfri@jewfri.kr)	710-4977
제주여성인력 개발센터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새일여성인턴·결혼이민여성인턴 모집	•지원자격: 취업희망 여성인턴 누구나 (결혼이민, 저소득, 장애인 우선) •모집인원: 새일여성인턴 - 35명 결혼이민여성인턴 - 4명	기간: 모집 시까지 제주상록회관 4층	753-8090



사회복지협의회 2016년 1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280,000	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345,000	345,000
복지사업후원	2,255,000	394,730
푸드마켓후원	2,690,000	2,169,12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고치환
- 편집인: 고경운
- 등록번호: 제주라 01010
- 창간일: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제주도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디자인열림

희망·내일키움 통장 신규가입자 모집

도, 오는 10일까지 주민센터·소속 자활센터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통한 자립 및 빈곤 탈출을 돕는 희망키움[I.Ⅱ] 통장·내일키움 통장 신규 가입 신청을 오는 10일까지 받는다.

희망키움통장[I]은 중위소득 40%(4인가구 175만 6000원)이하, 생계·의료급여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통장은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가구당 월평균 25만원

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며, 3년 이내 탈 수급할 경우 적립금을 받게 된다.

희망키움통장[Ⅱ]은 중위소득 50%(4인가구 219만 5000원)이하, 주거·교육급여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매칭해 주고 3년간 통장 가입을 유지하면 만기시 지급한다.

내일키움통장은 최근 1개

월 이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 1:1 매칭분과 함께 월 평균 4만8000원의 내일키움수익금도 지원한다. 이 경우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에 취·창업 및 교육이 수시 지원이 가능하다.

희망키움통장 가입희망 가구는 읍면동주민센터, 내일키움통장 가입희망자는 본인 소속의 지역자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사랑의열매 온도탑 117.7도로 역대최고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사랑의 열매 온도탑이 117.7도를 기록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70일 동안 진행된 '희망2016나눔캠페인' 전개를 통해 총 39억4331만 원을 모금했다고 지난달 1일 밝혔다. 이 모금액은 당초 목표액인 33억 5000만원보다 5억 3300만원이 높은 금액으로 목표 달성을 대비 117.7%로 제주지회 개소 후 역대 최고액이다.

한편, 이번 모금에는 다양한 기부자들 가운데에서도 2쌍의 부부 아너소사이 어터(1억 원 이상 기부하는 고액기부자 모임)가 탄생해 화제가 됐다.

고승화 회장은 "사회각계 각층에서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도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모금된 성금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하여 복지사각지대의 그늘을 밝히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장애인지원협의회장에 고관용씨 선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4대 회장인 고관용(제주한라대) 교수가 지난 23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사진>

고 회장은 "앞으로 도장애인지원협의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 주민과 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체감하

는 장애인 복지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김순옥(조천읍) 이사와 고경남(화북동) 대의원이 감사로 선출됐다.



고태언 처장 대통령 표창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회장 고충석) 고태언 사무처장이 지난 달 1일 제주



도청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지난 제95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고태언 사무처장은 지난 2011년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수여하는 아산상 자원봉사상을 수상한 바 있다.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장에 윤두호씨 취임

제5대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장에 윤두호 전 제주도의회의원이 지



난 1월 11일 취임했다.

윤 관장은 "제주시 동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칠 것"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윤 관장은 지난 1월 28일 열린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됐다.

2016년 달라지는 사회복지시책



<여성·가족 분야> 체감형 양성평등정책 도입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프로젝트가 4대 핵심과제 22개 사업에 20억2500만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우선 안심하고 편안한 육아,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제주 일·가정 양립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센터는 사회적 돌봄 공

동체를 육성하는 제주형 공동육아나눔터 '수놓음 키즈 카페'를 운영한다.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해 투자기업과 연계한 청·장년 여성일자리 지원, 중·고령 여성 시간제 일자리 지원, 여성 창업 인큐베이팅 등도 진행된다.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 1면에서 계속

위한 '작은 결혼식', '가족성장 아카데미', '제주형 가족친화 마을모텔 개발·운영', '위기가족 가족기능회복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양성평등 실현 및 안전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힘쓴다. 성인제 제도 정착, 여성대표성 제고, 여성리더육성 및 국제여성교류, 양성 및 도민 성인권 교육 등도 진행된다.



<아동·보육 분야> 가정폭력 추방 주간 실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서비스 단가가 6500원('15년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중위소득 120%(4인가구 526만 9000원)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이 사라지지만 지난해 받을 수 없었던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간제 보육반이 도내 17개로 확대된다. 이는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다.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을 위한 가정폭력 주간이 운영된다. 2016년부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

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이 가정폭력 추방 주간으로 정해진다.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가입연령이 기존 만12세에서 만13세로 확대된다. 가입 조건은 중위소득 40%(4인가구 175만 6000원)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입양아동의 양육수당지원(월 15만원)의 연령도 만 15세 미만에서 만16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보건위생 분야> 4대 중증질환 지원 확대

국가암검진 주기 및 연령이 조절된다. 간암의 경우 발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며, 자궁경부암의 경우는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 증가 추세를 반영해 검진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했다. 또한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12세 이하 어린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도 전액이 지원된다.

4개 중증 질환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초음파 검사 전면급여가 실시되고, 수면내시경 급여 등 고비용 필수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확대된다.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

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연조제(짜먹는약)와 정제(알약)도 포함된다.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제주에너지공사, 도내 20개 시설단체에 2억원 규모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이성구)의 후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

시설의 공공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내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을 통한 탄소없는 섬 제주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진행된다.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선착순 접수를 받아 진행된 사업에는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 총 20

개소가 선정됐다.

특히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과 연계해 참여 시설의 자부담이 없도록 진행된다.

사업기간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지원규모는 총 2억원으로 1개소 당 10KW, 1천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제주에너지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1월 26일 제주에너지공사 회의실에서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 보급건물 지원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장애인들이만의 방식으로 만든 쿠키 '넛(nut)수다'

“일 년 동안 7명의 청년장애인들이 견과류를 넣은 쿠키 만드는 법을 배우고, 또 배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청년발달장애인들이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넛(nut)수다’라는 신제품 쿠키를 출시해 인기를 얻고 있다. 일배움터(원장 정춘진)가 열고 있는 청년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일하는 기쁨! 취업을 job아라’ 프로그램에 참여한 7명의 청년발달장애인들의 작품이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일하는 기쁨! 취업을 job아라” 프로그램에서 발달장애인들은 우도에서 공수한 땅콩을 직접 까고, 쿠키반죽을 만들어 오븐에 굽기까지 전체 생산과정에 참여했다.

일배움터 관계자는 “직업

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습과 선행학습을 통해 쿠키를 만들 수 있게 됐다”며 “함께 하면 행복해지는 쿠키 ‘넛(nut)수다’에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당신의 고민을 말해보세요”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지난달 17일 복지관 일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2016년 제1회 상담의 날’을 진행했다.

주거복지실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상담의 날’은 지역 내 다양한 복지 관련 기관이 참여해 여러 유용한 서비스를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금증 해소하며, 기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상담의 날’ 행사에는 이용자 151명이 참여했으며,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외 총 11개 복지관련 기관이 참여해 주거복지상담 및 프로그램 등을 홍보했다.

심리 지원 프로그램 ‘세상디딤, 꿈드림’



가롤로의집(원장 김정숙)은 통합심리 지원프로그램 ‘세상디딤, 꿈드림’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장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고용유지와 취업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전국 업무실적 종합평가서 최우수상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회장 강경화)가 2015년 전국 연합회 업무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도연합회는 최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2016년 대한노인회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경로당 활성화, 농촌인

력지원사업, 지역사회 나눔 활동 선도적 역할 등이 우수 사례로 꼽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강경화 회장은 “앞으로도 제주지역 노인들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짜장면을 나누는 맛있는 화요일’

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회장 박춘근)가 주최하고 중화요리 전문점 비룡·영반점이 후원하는 ‘짜장면을 나누는 맛있는 화요일’ 나눔행사가 지난 달 23일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회관에서 열렸다.

이 나눔행사는 장애인 및 소외계층에게 음식 나눔을 통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

고자 계획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비룡·영반점 직원들이 참가자 150여명을 위해 짜장면과 짜장밥, 우동을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전달했다.

한편, ‘짜장면을 나누는 맛있는 화요일’ 나눔행사는 지난해 12월 처음 시작해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마다 열리고 있다.



이진 기념식 및 시설장 이·취임식 열려

행복한심터(원장 강혜정)이진 기념식 및 시설장 이·취임식이 지난 1월 15일 열렸다. 이날 행복한심터는 첨단과학단지 내에 위치했던 시설을 노형동으로 이전했고, 제2대 강혜정 원장의 취임식도 함께 열었다.

강 원장은 “이용자가 즐겁고 행복한 곳, 직원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부모에게 언제나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곳, 지역사회에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소/식/마/당

훈올레공제조합 정기총회 개최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참여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자활공제조합인 훈올레공제조합(이사장 임철남) 정기총회를 지난 달 16일 열었다.

훈올레공제조합은 서귀포일터나눔자활 참여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출자금을 조성하고 긴급한 생활자금 필요할 때 신용으로 대출해 경제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만든 협동조합이다.

장애인 및 직원 초대해 짜장면 나눔



정통중화요리 아래향(대표 이현석)은 지난달 15일 사회복지법인 정혜원의 장애인 및 직원들을 초대해 맛있는 짜장면 120여 인분을 손수 만들어 후원했다.

아래향은 2015년 한해 동안 매월 정혜원 가족들을 위해 짜장면을 손수 만들어 후원하면서 따뜻한 정을 나뉘웠으며, 2016년에도 정혜원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자장면을 후원할 계획이다.

설 선물로 받은 한우 모아 기부



수협중앙회 제주공제보험지부(대표 강필오)는 지난달 11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운영하는 제주광역푸드뱅크에 약 100만원 상당의 한우찜갈비세트 10개(20kg)을 기탁했다.

수협중앙회 제주공제보험지부 직원들은 설선물을 좋은 일에 사용하고 싶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십시일반 물품을 모아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설맞이 '정 나눔 활동' 전개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강철남)는 2016년 설을 맞아 지난달 1일부터 일주일간 생활이 어려운 도내 위탁가정 250여세대를 대상으로 '정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나눔 활동으로 위탁가정에는 설명절 상차림 지원을 위한 선물세트(143세대), 상품권(3세대), 쌀(27세대), 식료품(69세대) 지원 등 약 160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이 전달됐다.

자광원 찾아 설맞이 후원물품 전달



신서귀포로타리클럽(회장 김명성) 회원들은 지난달 5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지역사회복지시설인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약천사 자광원(원장 성원스님)을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한편 신서귀포로타리클럽은 서귀포지역의 노인시설 등을 위한 경로잔치, 서귀포온성학교를 위한 앨범기증 등 지역사회 의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홀로사는 어르신 명절마다 찾아가



사회복지법인춘강 어울림터(원장 조인석)는 지난달 4일 설을 맞아 우리 주위에 홀로사는 어르신 및 장애인 가정을 찾아가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어울림터는 매해 명절마다 직업재활훈련생 및 근로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전달하며 나눔배려하고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간직할 수 있길 바라며 사업을 지속될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요양원 공연



온새미로연합(늘푸른, 봉아름, 우리동네, 이호, 용담)지역아동센터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지원받아 2015년 12월부터 1년간 '너와나 그리고 이웃과 함께 문화로 통(通)하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21일 성지요양원을 방문한 아이들은 어르신들께 마술, 댄스, 합창 등을 선보였고, 안마 및 말동무 등의 활동도 진행했다.

송년행사서 봉사단에 감사패 수여



늘푸른노인전문요양원(원장 강진석)은 요양원 개원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활동해온 부초미예술공연단과 한벗자원봉사단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부초미예술공연단은 남다른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으로 본원에 입소한 어르신들을 위해 다채로운 공연을 진행해 왔다. 한벗자원봉사단은 어르신들을 위한 정서지원 및 안마서비스를 지속해 왔다.

창립 30주년 기념 후원금 기탁



선진인쇄사(대표 강규진)는 지난 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를 찾아 후원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날 기탁식에서 강규진 대표는 "앞으로도 도사회복지협의회가 제주지역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복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인관계·의사소통 프로그램 운영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지난 1월부터 시설 이용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기술향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관계형성프로그램, 인권교육프로그램, 성교육프로그램, 문화체험프로그램 등 4가지로 구성되었으며 연말까지 실시 될 예정이다.

요가 등 다양한 운동프로그램 진행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현성훈)는 이용장애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운동프로그램은 다음카카오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인터넷 하는 돌하르방' 지원 사업으로 클라이밍, 승마, 요가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과정으로 짜여졌다.

조리사 모임 청백회 뷔페 제공 봉사



조리사모임 청백회(회장 송우진) 회원 10여명은 지난 1월 12일 혜정원 아가의집(원장 박두현)을 방문해 함박스테이크, 파스타, 탕수육 등 10가지의 뷔페메뉴를 준비해 장애인들에게 제공했다.

청백회는 2014년부터 겨울과 여름 연2회 방문해 바베큐파티, 뷔페를 준비해 식사보조 등의 봉사활동을 지속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시론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을 제공합니다



나용해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장

요즘들어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바우처)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4인가구 4391천원) 이하의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로서 수요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직접 지급하여 수요자의 선택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실시하는 사업 형태

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2016년의 경우 전국에서 542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2007년도 5개 사업 644백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도에는 13개사업 4606백만원, 올해는 17개사업 8293백만원으로 매년 확대 투자되고 있다.

제주도, 17개 사업 82억 투자

아울러 2012년 40개소에 불과하던 제공기관도 올해 2월 현재 88개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에 비해 120%가 증가하여 도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현대사회의 경제사회적 변화, 가정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한 성인들의 스트레스, 우울, 의사소통 등 여러 가지 심리정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성인심리지원서비스”를 기획

하여 제공하게 되었고, 이에 서비스가 필요했던도내 성인층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접근과 해결방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갈수록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성장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지원조직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제주의 특색과 도민의 복지욕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발굴과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앞으로도 제주자치도에서는 도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템을 개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사회서비스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고

우리 가족을 행복으로 인도해 준 육아휴직



김철석

아라동 주민센터

요즘 tv, 신문 등을 통해서 남성의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었다는 보도를 많이 접하게 된다. 본인도 그들 중 한명으로 작년 이맘때쯤에 육아휴직을 했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사회적인 분위기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참 많이 눈치도 봤고 고민도 많이 했다.

육아는 생각보다 녹록치 않았다. 주변 친구들은 ‘육아휴직 해서 참 좋겠다’라고 비아

냥 거렸지만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다.

그동안 아내가 육아는 정말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짜증 낼 때는 ‘집에서 애만 보는게 뭐가 힘들어’ 속으로 생각했었는데 그제서야 아내의 심정을 십분 이해할 수 있었다.

차츰 시간이 지나고 육아에 어느정도 적응이 되어가면서, 그동안 힘들고 짜증나서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는 ‘우리 가족을 위해 내가 희생하자’라는 마음이 컸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육아휴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아이와 1년이라는 시간동안 함께하면서 애착관계가 많이 형성되고, 조금씩 변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게 너무 즐거웠고, 엄마보다 나를 더 많이 찾고 놀아주라고 애교를

부릴때는 정말 행복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6%로 저조하다. 그것도 대부분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육아휴직자가 늘어나면 인원을 보충해야 된다는 점 등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입을 수는 있겠지만, 육아휴직으로 가정의 안정과 행복감이 회사생활로 이어져 능률이 더 올라가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져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더 큰 이익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본인 아기는 본인이 키울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회 문화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여 결국 국가경쟁력이 제고 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이 하루 빨리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칼럼

출사표(出師表)



문익순

(전) 4·3사업소장

다가오는 새봄에 치러질 20대 총선을 앞두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권력쟁취를 위한 여야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의 활동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지역에서도 3명을 뽑

는 국회의원 선거에 20여명이 출사표를 던지고 득표를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출사표란 중국의 삼국시대에 유래되었다. 촉나라 재상 제갈량이 위나라 공격에 앞서 촉한 황제에게 올린 글에서 연유한다. 고전적인 출사표가 전쟁에 나서는 신하의 뜻을 임금께 아뢴 것이라면, 현대적 출사표는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가 출마의 변을 유권자에게 밝히는 출발신호로 회자되고 있다.

현역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예비후보자들은 명함이나 건물벽면에 큼지막한 현수막을 내걸고 자신을 알리기에 혈안이다. 유권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 지지를 호소하며 동분서주하는 후보자들에게 하루해가 짧아 보인다. 국민을 잘 섬기고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하겠다는 후보자들의 다짐과 약속은 언제까지 일까. 진정한 후보자를 선택할 ‘갑’으로서의 고뇌에 찬 결단의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

달라질 새 국회... 소중한 투표권 꼭 행사해야

현대적 출사표는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 정도의 정치, 국궁진취(鞠躬盡瘁), 진인사대천명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 후보자는 주민대표로서 공복의 자질과 능력을 겸비하고, 그 지위에 맞는 여러 덕목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전쟁과 선거는 제로섬게임이다. 전쟁의 승패는 무력, 선거의 당락은 유권자의 결정에 있다. 지금까지 오직 당선을 위해 금품살포, 흑색선전, 마타도어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이 동원된 혼탁함이 어김없이 나타나곤 했다. 선거운동은 진력을 다하되 방법은 페어플레이해야 한다.

19대 국회활동상을 보면 정치인에 대해 거부감이 든다. 의원 개개인은 훌륭한 인재들인데 집단화만 되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 타협을 상실한 채 국회입법 활동은 소홀히 하며 자신의 신변안전과 정쟁에만 진력하는 사람들.

이런 국회의원들을 꼭 뽑아야 하는지 상념이 혼란스럽다. 국리민복을 위한 정치가 되래 국민들을 실망시켜 냉소주의를 만연시키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의 꽃이며, 민주발전의 초석이고 원동력인 것을, 주민참여 없는 민주주의 발전은 없다. 그래서 달라질 새 국회를 기대하고 갈망하며 소중한 투표권은 꼭 행사해야겠지. 이제 선거참여에 유권자들의 한 단계 더 높은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선택이 절실한 시점이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

제주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 ①

故 오원국 사회복지법인 농애원 전 이사장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제주 사회복지 역사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사회복지신문'에서는 매월 제주지역 사회복지인을 소개하는 코너인 '제주 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를 연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주>

“농아학생 가르치며 ‘뭐든지 하면 된다’ 배워”

제주·중앙 아우르며 농아복지계에 굽직한 역사 새겨

2014년 9월 29일 새벽 대한민국 농아복지의 거목 오원국 이사장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자리에는 숨죽인 울음소리가 가득했다. 제주도 농아인의 아버지로서 존경받는 삶을 살았던 그를 <제주사회복지인물 조명하다> 코너의 첫 인물로 소개한다. 본 기사 내용은 그의 생전에 진행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오 이사장은 1936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다. 9살 되던 해 뇌막염에 걸려 오랜 시간 투병생활을 한 이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입만 뿡긋거리더라. 그 때 더 이상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6·25가 발발하기 2년여전 서울로 이사를 하고 당시 국립서울맹아학교(현 서울농아학교) 농아부에 입학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다.

“1·4후퇴때로 기억하는데 최선생님이라는 분이 가족들과 피란을 떠나는 길에 학교기숙사에 들러 농아 학생과 시각장애 학생들을 데리고 갔어요. 인천항에서 군함을 탔는데 도착해 보니 제주였어요”

그의 삶의 흔적 중에서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는 20여년간의 교사경력이다. “전쟁이 끝나고 서울 학교로 돌아갔는데 졸업을 앞두고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죠. 마침 선생님의 권유로 ‘농아연주단’에 참여해서 활동하던 중에 캐나다 상원의원 부부 초청 행사에서 우리 연주단이 애국가를 연주하게 되었어요. 그때 감동 받은 상원의원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면 캐나다로 초청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든 학교에 남아 있어야 캐나다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결국 그는 20세에 고등부 사범과를 졸업하여 초등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 모교에서 농아학생들을 지도하게 된다. 캐나다 방문의 꿈은 이뤘을까? “4년만에 캐나다에서 초청장이 온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가는데 정말 천국의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오 이사장은 이 순간을 자신의 생애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꼽는다.

오 이사장은 5년여 동안의 국립서울맹아학교 근무에 이어 제주영지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를 했다. “당시 영지학교에서는 오전에만 수업만 했어요. 학생들이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오후 시간에는 아

이들에게 탁구를 지도했지요. 그때 탁구를 배운 농아학생들이 비장애 인대회에 출전해서 메달도 따고 해서 지역사회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곤 했어요. 탁구 국가대표로도 선발 돼서 국제대회에 출전한 학생도 있었어요. 그때 뭐든지 하면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장애 때문에 못한다는 건 없다고 생각하게 됐지요”

오 이사장은 교사로서 농아인 제자를 가르치고 그들을 사회인으로 성장시킨 이후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 냉정한 현실세계 속에 농아제

매를 땀을 때 쯤 IMF한파로 인해 제주에서도 많은 농아인들이 직장을 잃고 힘들어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는 중앙회 상임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제주도농아인협회장으로 복귀한다. 복귀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목공공장 ‘나무와 손’의 설립. 목공 기술만큼은 농아인이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목공공장에서도 직원감축이 일어나고 결국 기술은 있어도 장애가 있는 농아인들이 1순위로 정리되고

늘 새로운 목표가 있었다. “전국 어디를 다녀봐도 농아인복지관을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농아인협회가 있지만 사단법인체로 운영되면서 도시로부터 보조금 받는 것으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요. 그래서 제주도에 농아복지관을 세워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내놓고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도 받고 그렇게 지금의 제주농아복지관을 개관하게 됐죠”

1981년 도농아복지회 창립 · 2005년 도농아복지관 건립 농아노인 위한 공간 소원... 당사자 이해 기반 활동 주문도



▲ 좌) 1981년 제주도농아복지회 창립 사진, 우) 1955년 3월故오원국 전 이사장의 서울농아학교 농아부 중등과 제4회 졸업 사진(앞줄 맨 왼쪽)

자들이 살아갈 모습이 걱정이었다. 하지만 궁하면 통한다고 했다. 오 이사장은 1981년 제주도 1호 사회단체 제주도농아복지회를 창립, 농아인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제주도농아복지회 창립 이후 교사직을 그만두고 16년간 제주에서 지부장으로 재직하던 그는 1996년부터 한국농아인협회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겨 중앙무대로 활동 폭을 넓히게 된다. 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인정제도의 시행,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등 농아인복지의 획기적인 발전들이 오 이사장이 중앙회 활동 당시 이뤄진 일들이다. 중앙무대에서의 활동 성과들이 열

있는 현실이었던 것. “마침 외도동에 있던 부지에 목공공장을 마련해 실직한 농아인들을 채용했어요. 공장 운영을 위한 자본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기도 하고 여러 곳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우려한대로 운영이 어려웠지요. 매월 꼬박꼬박 월급을 챙겨주는 일이 녹록치 않았죠. 하지만 농아인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의미있는 도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는 천상 제주도 농아인의 영원한 선생님, 영원한 아버지일 수 밖에 없었다. 농아인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할 현실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의 가슴 속에는

그의 도전은 늘 농아인복지의 역사가 되었다. 그에게 남아있는 도전은 무엇일까? “농아인들은 어린시절에도 따돌림 아닌 따돌림으로 설움을 받고 아이를 낳고 살아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자식들에게조차 대접 못받고 서럽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나이가 들면 농아인의 삶은 더 비참해져요. 평생을 답답함과 서러움에 살아가야 하는 게 농아인의 삶이지요. 그래서 농아노인들만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면 소원이예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농아인들끼리 모여 여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요” 결국 농아인의 삶에 대한 걱정이다.

“농아인들에게는 장애로 인한 한계를 줄일 수 있는 자기계발과 비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교류를, 장애인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내 그의 마지막 소원과 당부는 우리 사회의 몫으로 남겨졌다. 이제 그의 삶에 빛을 진 우리 사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이다.

<정리 - 김성건 사무국장>

위 기사의 전문은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내 제주사회복지소식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설탐방

(75)제주태고원

다양한 프로그램 어르신 미소 끊이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프로그램 경진대회 수상 채광·통풍 잘되는 설계구조로 건강 챙겨

불교에서 극락이란,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모두 갖춰진 상태를 말한다. 즉, 현실세계도 마음에 따라 극락세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제주태고원(원장 고금순)의 지향도 이와 같다. 태고원의 운영목표가 어르신들에게 더 이상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미소가 아름다운 요양원, 제주태고원을 찾았다.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태고원은 지난 2005년 1월 제주시 화북2동에 그터를 잡고 개원한다. 제주태고원은 지역사회 노인복지를 위한 요양시설로 노인성 질환 예방 및 종합적 노인복지서비스 제공하고자 설립됐다. 현재 제주태고원에는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58명의 직원들이 총 95명의 입소어르신을 모시고 있다.

제주태고원은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은 ‘태고시장’이다. ‘태고시장’은 요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여는 작은시장이다. 욕구조사를 통해 원하는 물품을 미리 마련하고, 보호자를 초대해 어르신과 함께 시장보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하나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으로는 어르신들의 관절염예방 및 근력강화를 꾀하기 위한 ‘스포밴드’가 꼽힌다. 월 2회 물리치료가 진행되는 ‘스포밴드’ 프로그램은 즐거운 음악과 함께 신축성이 좋은 밴드를 이용한 간단한 체조다. 스포밴드 프로그램은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프로그램 경진대회에 ‘하근디 아팜’ (여기저기 아파)라는 이름으로 참여해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제주태고원은 ‘태고시장’, ‘스포밴드’, ‘쾌변 보장’ 등 어르신의 욕구에 맞춘 여러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며 노후 여생이 편안하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2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는 어르신의 원활한 배변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쾌변 보장’ 프로그램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의사의 한방진료, 나들이, 요리프로그램, 장맛사지 훈련 등으로 구성돼 매우 유익하다는 평을 받았다.

더불어 제주태고원의 자랑중 하나는 모든 방이 채광과 통풍이 잘된다는 점이다. 제주태고원은 설립 초기부터 제주도 내의 우수한 요양시설들을 벤치마킹해 장점을 모아 설계가 이뤄졌다. 어르신들이 더 많은 햇빛을 보고 좋은 공기를 맡게 하기 위해서다. 그 덕분인지, 제주태고원에는 보통 요양원에서 나는 쾌쾌한 냄새도 거의 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제주태고원에는 도내의 약 30여개의 단체들이 이미용, 목욕, 중식제공 등의 활동을 펼치

고 있다. 특히 합주, 무용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이 다수 마련돼 어르신들에게 큰 즐거움이 되고 있다.

고금순 원장은 “제주태고원은 생활어르신들의 행복의 미소, 보호자님들의 감동과 신뢰의 미소, 임직원들의 자긍심과 보람의 미소가 빛나는 요양원”이라며 “앞으로도 내적기반을 충실히 하고, 직원 역량강화 및 외적활동 토대 구축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노후여생을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29

소송구조제도 I - 대한법률구조공단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우리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누구나 필요에 따라 재판을 통하여 권리의 구제

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재판에 쉽게 다가가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 법률전문가를 찾아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개인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법률복지 증진 이바지 목적

「법률구조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

조를 함으로써 기본적인 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다양한 법률구조사업 수행

공단은 국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법률구조대상자에 대

해서는 소송의 수행까지도 무료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체불근로자, 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업인, 소상공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이며 초기 상담 이후 승소가 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무료구조여부가 결정된다.

◆ 유료소송도 시중보다 저렴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의 경우에는 소장이나 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하여 주기도 하여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료소송구

조의 경우에도 공단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시중의 일반 변호사비용에 비해 저렴한 금액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987년에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의 법원, 검찰청 소재지마다 지부와 출장소·지소가 있는데 제주지역에는 제주지부(법원 근처)와 서귀포지소(서귀포시청 內)가 설치되어 있다. 공단 이용을 위해서는 공단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거나 국번없이 132번에 의한 전화 법률상담, 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를 통한 사이버 법률상담 등을 활용하면 된다.